

이건 내 우주선이야!

양승희 글·그림



주제	그림책을 읽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말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상상, 연상, 놀이, 애착 물건, 즉흥극, 물체 변형놀이, 연극 놀이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미술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며 즐겁게 노는 어린 두 딸과, 그들의 말랑말랑한 세계를 바라보는 엄마의 상큼한 변화
아이들이 해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통해 얼마간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낡은 바구니를 버리려 하자 언니인 토토는 바구니가 자기 우주선이라며 “주세요! 주세요!” 부탁을 하고 마침내 자신만의 우주선으로 바구니를 갖게 되지요. 토토는 구멍 송송 낡은 우주선에 강아지풀도 태우고 한쪽밖에 남지 않은 장갑도 태워요. 나머지 한쪽은 우주에 있을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때 우주선이 뭔지도 잘 모르는 동생 토리가 와서 언니와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토토는 토리가 동생이라서 특별히 우주선에 태워 주는데, 과연 이 명랑한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학습 목표

- 그림책을 읽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할 수 있다.
- 상상력을 발휘하여 익숙한 물건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책을 읽은 느낌을 떠올려 상상과 환상의 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토토의 엄마는 집 정리를 하며 구멍 나고 낡은 바구니를 버릴 참이다. 그런데 바구니가 보이지 않는다. 토토가 가져간 노란 바구니는 더 이상 그냥 바구니가 아니다. 토토에겐 ‘우주선’이다. 토토는 노란 우주선에 자신이 아끼는 것들을 가득 담는다. 다른 사람에겐 하찮은 잡동사니인데 토토에게는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물건 같다. 토토와 동생 토리는 별 모양 모자를 쓰고 노란 우주선을 꼭 잡으며 우주여행을 떠난다. 불 꺼진 방 안, 우주에서 놀다 잠든 토토와 토리를 지켜보던 엄마는 어릴 적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옷장 한 귀퉁이에 보관하던 발레리나 오르골 추억 상자를 꺼내 보며 상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펜과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은 아이가 그린 것처럼 귀엽고 자연스럽다. 구불구불하고 자유로운 선 모양, 핫핑크와 노란색 등 밝은 느낌의 색감은 이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

아이들과 그림책을 함께 읽고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물체 변형 놀이와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인터뷰하는 활동을 해 보고 싶다. 책을 읽는 아이들도 그림책과 비슷한 경험이 있어 공감하며 읽을 것 같다. 동생과 둘이 놀았던 일, 익숙한 물건을 활용하여 상상하며 놀았던 경험,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라 아껴뒀던 일 등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물체 변형 놀이는 친숙한 물건을 다른 용도로 상상해서 표현하는 간단한 즉흥극으로 아이들은 이 활동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순발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인터뷰하는 활동으로 마무리 짓는다. 부모님이 어릴 때 즐겨하던 놀이, 소중히 여겼던 물건, 꿈꾸었던 미래의 모습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밖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수업 준비물

채색도구, 즉흥극 활동 자료(보자기, 막대 등)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동기 유발	2차시
	표지 살펴보기	
읽는 중	그림책 읽기	
	등장인물 탐색하기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소감 나누기	
읽은 후	물체 변형 놀이하기	
	부모님 인터뷰하기	1차시
	상상의 세계 표현하기	1차시

읽기 전

1. 동기 유발

■ 마음 열기

-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상상해서 동작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작은 물고기입니다. 깊고 푸른 바다를 헤엄치며 맛있는 물풀과 작은 먹이를 찾아 먹어 보세요. 친구들과 먹이를 나눠 먹어도 좋습니다. 배가 부르니 물 밖으로 폴짝 뛰어도 좋습니다. 세 번 연속해서 뛰어 봅시다. 그런데 멀리서 상어가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이제 바위 밑에 몸을 숨겨 주세요”

“지금 여기는 뜨거운 모래 사막이에요. 여러분은 사막도마뱀입니다. 모래가 너무 뜨거워 네 다리로 오래 서 있기가 힘들네요. 앞 다리와 뒷 다리 하나씩만 모래 위를 짚어 열기를 식혀 봅시다. 이제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로 걸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는 구름 위예요. 구름이 폭신평신했어요.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걸어 보세요.”
 “(매트를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구름 위에서 자유롭게 뒹굴어 보세요.”

Tip. 교실을 걷다가 선생님의 해설에 따라 움직임을 표현한다. 가만히 서서 지시에 따를 때보다 훨씬 아이들이 상황을 잘 떠올릴 수 있다.

■ 경험 나누기

-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나 애착 인형이 있나요?
- 나에게 왜 소중한지, 그 물건에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선물로 받은 토끼 인형을 데리고 잠을 자요.

애착 인형은 없는데 애착 이불이 있어요. 그 이불을 덮어야 편히 잠들어요.

바닷가에 놀러갈 때마다 조개껍질을 주워 와요. 조개껍질을 보면 바닷가에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나서 기분이 좋아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관하는 상자가 있는데 들어있는 물건 모두 어릴 때 추억이 들어 있어서 못 버리겠어요.

Tip. 그림책을 읽기 전 동기유발로 애착 인형과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다. 그림책을 읽은 뒤 나의 소중한 물건을 떠올려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이어서 해도 좋다.

나의 소중한 물건 소개하기

이름

☞ 나의 소중한 물건을 소개해 봅시다.

• 내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고래 인형

• 왜 이 물건을 좋아하나요?
거울에도 여울케도 하가워서 좋고,
 또 나를 지켜 주기 때문해.

• 이 물건에 나만의 이름을 붙여준다면 뭐라고 지어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림이 고래 인형이라
 이름을 지으면 안개가 귀여워
 지는 느낌 있어서

나의 소중한 물건 소개하기

이름

☞ 나의 소중한 물건을 소개해 봅시다.

• 내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배게

• 왜 이 물건을 좋아하나요?
족감이 좋고 만지면 감이 잘 와서.

• 이 물건에 나만의 이름을 붙여준다면 뭐라고 지어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오물이 : 배게를 안고갈 때 오물오물
 거러서.

2. 표지 살펴보기

■ 제목과 그림 살펴보기

-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예: 초록색과 분홍색 테두리가 눈에 띄어요. 밝고 경쾌한 느낌이에요.

토끼가 노란색 물건 같은 걸 안고 있어요. 표정을 보니 화가 난 것 같아요.

제목이 '이건 내 우주선이야!'인 걸 보니 토끼가 자기의 물건을 우주선이라고 말하며 꼭 끌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 내용 예상하기

-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토끼가 미술 시간에 노란색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우주선이 이상한 모양이라고 놀려요. 그래서 속상해 하며 “이건 내 우주선이라구!”라고 소리치는 내용일 것 같아요.

토끼가 우주에 가는 상상을 하며 즐겁게 노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 이번에는 앞뒤표지를 펼쳐 전체 그림을 보고 내용을 예상해 볼까요?

예: 앞 표지에는 노란색 물건이 인형인 줄 알았는데 뒤 표지를 보니 가방 같아요. 토끼가 아끼는 노란색 가방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탐을 내서 지키는 이야기 같아요.

Tip.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 면지와 속표지 살펴보기

- 면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탁상시계, 손 선풍기, 옷걸이, 우산, 곰 인형, 컵, 토슈즈 등
- 속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노란색 가방, 노란색 바구니 등

읽는 중

1. 그림책 읽기

■ 내용 확인하기

- 엄마 토끼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 집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고 있어요.
- 토토는 노란 바구니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예: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 토토의 우주선을 한 번 볼까요? 무엇을 담았나요?



예: 종이배, 부채, 고양이 장갑,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 공룡 인형, 곰 인형, 꽃모양 인형 등이 보여요.

- 토토는 토리에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기 전에 무엇을 당부했나요?
예: 모자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우주선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된다고 했어요.
- 우주 여행을 하는 토토와 토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예: 어지러울 것 같아요.
신날 것 같아요.
- 우주에서 놀던 토토와 토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 잠이 들었어요.

- 엄마의 숨겨 둔 우주는 무엇인가요?

예: 발레리나 1호예요.

- 발레리나 1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예: 줄자, 종이인형, 단풍잎, 은행잎, 사진, 사탕, 몽당연필, 증명사진, 종이학 등이 보여요.

엄마 토끼가 어렸을 때부터 모아오고 좋아했던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어요.

- 발레리나 1호를 열어보는 엄마의 표정 또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흐뭇한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워할 것 같아요.

토토와 토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할 때랑 비슷한 표정, 즐거운 마음일 것 같아요.

■ 그림 읽기

- 작가는 왜 펜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예: 펜이 주는 자유로운 느낌이 토토와 토리가 상상의 세계로 가는 이야기와 잘 어울려서

- 토토와 토리가 대화할 때 글자색을 한 번 살펴볼까요?

예: 동생 토리는 초록색이고 언니 토토는 핫핑크색을 썼어요.

- 이 책에서 눈에 띄는 색은 무엇이 있나요?

예: 핫핑크

- 핫핑크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예: 환상적인 느낌, 상큼 발랄해요.

- 핫핑크 말고 또 어떤 색이 많이 쓰였나요?

예: 노란색이 많이 보여요.

- 노란색은 어떤 장면에서 많이 쓰였나요?

예: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 불빛이 새어 나오는 장면에서 노란색을 썼어요.

바구니도 노란색이에요!

- 노란색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왜 노란색으로 표현했을까요?

예: 밝고 어린 느낌이에요.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란색을 쓴 것 같아요.

2. 등장인물 탐색하기

- 등장인물들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예: 노란색 바구니를 우주선이라고 부르며 우주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토토는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요.

토리는 언니 말을 잘 듣고 언니랑 싸우지 않고 잘 노는 걸 보니 착한 것 같아요.

토토의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집 정리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부지런한 것 같아요.

3. 경험 나누기

- 토토는 모자를 쓰면 우주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 사탕을 먹으면 힘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나에게 힘을 주는 음식이나 힘이 생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저는 초콜렛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요.

힘들 때 우리집 강아지를 껴안고 발가락을 만지면 힘이 생겨요.

- 토토는 넓은 노란 바구니를 우주선이라 여기고 놀았는데요.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예: 저는 어릴 때 식탁 의자 네 개 위에 이불을 덮어 텐트를 만들어 놀았어요. 이불로 둘러 쌓인 의자 사이에서 과자도 먹고 그림도 그리며 놀았어요.

큰 택배 종이 상자를 배라고 생각하고 놀았어요. 많이 놀았더니 상자가 구겨지고 찢어졌었어요.

욕조에 물을 채우고 바다라고 생각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 그 밖에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예: 저도 어릴 때 놀다가 토토와 토리처럼 스르륵 잠들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동생 잘 돌보고 같이 놀아 주라고 해서 동생이랑 잘 노는 편이에요.

4.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인상 깊은 장면이나 표현 등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토토와 토리가 잠든 뒤 엄마도 엄마의 우주를 찾는 장면이 조금 감동적이에요.



엄마가 발레리나 1호를 열고 발레리나처럼 춤추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엄마는 어렸을 때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 그림책을 읽은 소감 이야기 나누기

- 그림책을 읽은 소감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이 그림책을 읽으니 어렸을 때 집에서 상상놀이하며 놀았던 기억이 나요.

엄마도 아이처럼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이나 기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엄청 잘 그린 것 같지 않고 아이가 그린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읽은 후

1. 물체 변형 놀이하기

■ 오브제를 활용하여 즉흥극하기

- 막대기를 활용하여 표현해 봅시다.

예: 연필이 되어 글을 쓴다.

바이올린 활이 되어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

드럼 스틱이 되어 신나게 드럼을 두드린다.

지휘봉이 되어 오케스트라 앞에서 지휘를 한다.

- 보자기를 활용하여 표현해 봅시다.

예: 보자기를 펼쳐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어 말리는 동작을 한다.

노란색 보자기 네 귀퉁이를 한 곳에 모은 뒤 바나나 껍질을 벗기듯 하나씩 펼치며 바나나를 까먹는 동작을 한다.

Tip. 물체 변형 놀이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준다. 막대기, 보자기 말고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익숙한 물건을 활용할 수도 있다.

■ ‘이건 더 이상 연필이 아니야’ 놀이하기

- 친숙한 물건을 다른 용도로 표현해 봅시다.
- 어떤 물건으로 표현했는지 알아맞혀 봅시다.

예: 연필로 이를 썬다는 동작을 한다. (이썬시계)

연필 두 자루로 젓가락질을 한다. (젓가락)

연필 한 쪽 끝을 입에 물고 빨아 마시는 행동을 한다. (빨대)

Tip. 사용하는 물체의 용도와 다르게 물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이나 노와 같이 다른 물건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힌다. 처음에는 몸짓으로만 표현하고, 다음에는 말을 해 실마리를 더 주면 좋다. 보는 사람 가운데 알겠다 싶은 이가 있으면 입으로 말하지 않고 손만 들어 다른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나 기회를 준다. 홀라후프, 손수건, 보자기 같은 물건들이 소재가 될 수 있다.

2. 부모님 인터뷰하기

■ 부모님 인터뷰하기

- 부모님의 어린 시절 사진 보며, 부모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 나와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 봅시다.
- 부모님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나요?
- 부모님은 어릴 때 또는 나만 했을 때 어떤 놀이를 하며 놀았나요?
- 어릴 때 특별히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나 애착 인형이 있었나요?
- 그 밖에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봅시다.

예:

엄마, 아빠 면담하기

부모님의 어린시절을 찾아서

이름

※ 부모님의 어린시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묻고 면담한 내용을 써봅시다.

- 어릴 때 특별히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나 애착인형이 있나요?
일기장
-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며 놀았나요?
고무줄 놀이, 종이인형 놀이
-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장래희망은 무엇이었나요?
선생님
- 어릴 때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같은 점은 무엇이었나요?
책 읽는 모습. (책 읽기를 좋아함!)

- 그 밖에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1 좋아하는 책은?
 (꼬마 흡혈귀)
 동화 시리즈

2 좋아하는 가수는?
 (서태지와 아이들)

엄마, 아빠 면담하기

부모님의 어린시절을 찾아서

이름

※ 부모님의 어린시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묻고 면담한 내용을 써봅시다.

- 어릴 때 특별히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나 애착인형이 있나요?
잠난감 자동차
-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며 놀았나요?
자치기
-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장래희망은 무엇이었나요?
과학자
- 어릴 때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같은 점은 무엇이었나요?
축구를 좋아했다.

- 그 밖에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가장 재밌게 보았던 책은 무엇인가요?
 <삼국지>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무엇인가요?
 <넬 그리머>

■ 부모님 인터뷰 후 소감 나누기

- 부모님을 면담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면담을 한 소감을 나누어 봅시다.

Tip. 부모님 인터뷰하기 활동은 가정연계과제활동으로 제시하면 좋다. 면담 내용 결과를 수업시간에 발표하여 공유한다.

3. 상상의 세계 표현하기

■ 상상의 세계 표현하기

- 상상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할 때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상상의 세계는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상상과 환상의 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봅시다.

예: 스크래치 페이퍼, 콜라주, 파스텔, 오일파스텔 활용

작품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 봅시다.

■ 친구들의 작품 감상하기

-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어떤 세계를 상상했는지 예상해 봅시다.
-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 잘 표현한 작품,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칭찬해 봅시다.



나의 소중한 물건 소개하기

이름

▣ 나의 소중한 물건을 소개해 봅시다.

■ 내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 왜 이 물건을 좋아하나요?

■ 이 물건에 나만의 이름을 붙여 준다면 뭐라고 지어 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엄마, 아빠 인터뷰하기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찾아서!

이름

▣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묻고 면담한 내용을 써 봅시다.

■ 어릴 때 특별히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나 애착 인형이 있나요?

■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며 놀았나요?

■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나요?

■ 어릴 때 자신의 모습과 자녀의 닮은 점은 무엇인가요?

■ 그 밖에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이름

▣ 내 경험을 떠올려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A large rounded rectangular area with a pink border, containing 12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